

# 진도군, 제16기 친환경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 유기농업반·발표식품반·국화산업연구회반 등 3개 과정 3월부터 10월까지 체계적 교육과정 거쳐 66명 졸업생 배출

진도군이 제16기 친환경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친환경농업인대학은 전문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16기 친환경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 실습, 품평회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과 함께 교육성과가 우수한 참석자로 박신태씨가 농촌진흥청장 공모상을 수상하고 유기농업반 김강석씨, 발표식품반 성현주씨, 국화산업연구반 박경양씨가 각각 진도군수 표

창을 수상했다. 또한 국화산업연구회반 회원들이 국화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으로 기탁해 기부문화에 동참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려운 영농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친환경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배움을 발판삼아 지역의 선도 농업인으로써 다양한 농업소득 창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092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고, 지역사회에서 친환경농업 정책을 이끔 기여하고 있다. 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에도

진도=조상용기자



## 완도군 청년 공동체 일냈다 생일 초록공방팀, '2년 연속 수상' 쾌거

완도군의 청년 공동체인 '생일 초록공방' 팀이 지난 20일 열린 전남도 주관 '2023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청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완도군에서는 8개 팀, 전남에서는 총 134팀이 활동을 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1차 서류, 2차 발표 평가 등을 통해 각 시군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10개 팀이 참가했다.

'생일 초록공방'은 완도군 청년 공동체(대표 감미희)를 대표해 참가했으며, '생일(도) 초록(자연보호) 공방(업사이클링)'은 아름다운 생일도의 자연이 깨끗하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인 7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생일 초록공방'은 그동안 '가고 싶은 섬, 생일도'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리적·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 연령이 동참할 수 있는 '찾아가는 주민 참여 체험' 활동으로 패션수막을 이용한 가방 제작·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를 위한 도자기 컵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등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생일 초록공방' 감미희 대표는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서 청년 공동체 활동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완도군은 지난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노화 오감각' 팀이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생일 초록공방' 수상까지 2년 연속 수상이라고 그 의미가 크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생일 초록공방 팀의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월출산에 국내 최고 수준 야영장 조성한다

### 총사업비 250억...월출산 친환경 명품시설 기대



지난 5월 서울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강진군 강진군수(오른쪽)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강진군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육관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2024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접수

### 장흥농업기반 구축 전력 추진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내달 31일까지 틈새 소득작목 육성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4개분야(생활자원, 인력육성, 작물연구, 원예연구) 35개사업으로 총 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체험농장 기반 조성 및 육성 시범 ▲향토음식 및 전통문화 계승 활동 지원 시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시범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최고품질 쌀 생산, 가공단지 시범 ▲벼 병해충 생력방

제 모관관주처리 지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에 위한 온도저감 기술 지원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작목 선발 확대 보급 등이다. 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2개 이상 사업 중복 신청, 장흥군 농업인 소득증대자금 연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된다. 2024년 농촌진흥시범사업은 신청기간 내(2023년 12월 26일 ~ 2024년 1월 31일)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군, 2024 국도비 보조금 3594억 확보...역대 최대

해남군이 2024년 국도비 보조금으로 역대 최대인 3594억원을 확보하면서 3년 연속 3000억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또 민선7기 출범 직전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명현관 군수는 물론 전 공직자가 전남도와 함께 각 부처 및 기재부, 국회 등을 수습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의 성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부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에 누락된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했

다. 이를 통해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 추가 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극대화해 왔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해남군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술라시도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0억원) 기본구상용역비 4억원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총사업비 123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군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내년도 ▲삼산 구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됐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